

『明善錄』을 통한 四象醫學 哲學배경에 대한 연구

김 달 래*

ABSTRACT

Study of philosophical b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by
『Myungsunrock(明善錄)』

Kim Dalrae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 Wonju, Korea

According to the above, 『Myungsunrock(明善錄)』 written by 'Hansuckji(韓錫地;A.D.1709~1803)' advocated his idea as well as criticized theory of 'Zhu Zi(朱子)' and influenced of the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established by 'Lee Je-ma(李濟馬)' indirectly and directly in later. Therefore it was as follows that the conclusion of the contents of 'Myungsunrock' and the philosophical b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1. Hansuckji was the 'Choungju Hanssi Rhevinyungongpa(淸州 韓氏 禮賓 尹公派)' and descendant of the founder of his family and he was born in 1709, dead in 1803 at 95 age
2. Hansuckji was a scholar of a 'Yang Ming(陽明)' that criticized study of 'Zhu Zi' and the group of 'Song(宋)'
3. Hansuckji defined that "Ge(格) is Zheng(正)".
4. Hansuckji advocated "Zhi Xing He Yi Shuo(知行合一說)"
5. Hansuckji advocated that (we must) reach the 'Ming Shan(明善)' through the study and the means of 'Ming Shan' is as like as the means of 'Zhi Liang Zhi(致良知)'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체질외과

※ 이 논문은 1997년 한의학연구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6. Hansuckji explained of theory of 'Tiyong(體用)' instead of deviding into 'Tian · Ren · Xing · Ming · Li · Qi(天 · 人 · 性 · 命 · 理 · 氣)'

7. The thought of Hansuckji delivered the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established Lee Je-ma(李濟馬) directly and indirectly

8. Hansuckji is the first class of the scholars of 'Yang Ming' that included the contents of theory of 'Yang Ming' among the 'Yanlun(言論)' directly

9. Lee Je-ma was obviously the third class of the scholars of 'Yang Ming' which advocating fundamental spirit of his whole life but he had no reference of the study of 'Yang Ming'

Keyword : Myungsunrock, Ming Shan, Hansuckji, Lee Je-ma, Yang M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 서론

『동의수세보원』이 발표된지 어언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상의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어딘가 한쪽 구석이 허전하다. 일찍이 동무 사상학문의 철학적인 연원에 대해서 최남선은 “어디에도 사승(師承)을 델 길이 없을 만큼 독창적이다!”라고 표현했었다. 하지만 동무의 대표적 저술인 『격치고』·『동의수세보원』을 보면 『방약합편』이나 초록을 보듯이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문맥 중간 중간에 보이는 어투는 분명히 기존의 성리학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도대체 동무는 왜 의학서적인 『동의수세보원』 첫머리에 성(性)과 명(命)이라는 글귀를 두었을까? 그리고 『격치고』의 제일 첫머리의 제목은 또 왜 사(事)와 물(物)인가?

한편 동무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의원론(醫源論)』에서 5-6천년동안의 역대의가들 가운데 허준을 최고의 공신으로 치켜세웠다. 사실 허준의 『동의보감』은 여러사람들의 의학이론을 편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동무학에 있어서는 철학과 의학이 나누어질 수 없다²⁾고 말했는데, 의학적인 연원을 동의보감에 둔다면 사상학설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운암 한석지와 『명선록』이다. 『명선록』은 이제마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책이다. 『명선록』은 한석지 사후 약 60~70년이 지났을 때인 동무의 나이 30대 중반이었을 때 동무에 의해 발견되었고, 『명선록』을 읽어 보고나서 동무는 제자들에게 “운암은 조선의 제일인자”라고 여러번 말했으며, 운암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냈다고도 한다.

필자는 이 두사람의 학문적 전승체계를 접하고 나서 『명선록』의 번역이 필요하다고보고 1994년 연변에서 국제사상의학학술대회가 열렸을 때 몇몇 조선족 학자들에게 번역을 의뢰했었으나 문장의 어려움만 탓하고 가능성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명선록』은 맹자보다 무려 6배나 많은 20여 만자의 방대한 분량이고, 거의 모든 문장이 사서(四書)·오경(五經)의 주된 요지를 따온 것이기

1) 최남선 : 我等の 財産 시문독본(時文讀本) 권4 제4과 李東武 (육당 최남선 전집 제 8권), 현암사, 서울, 1973

2) 이윤호 : 동무사상설의 경학적 기초, 황제의학 Vol.2 No.2 1977 p.321

때문에 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읽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던 중 한국 한의학 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명선록』의 해석을 통한 사상의학 철학배경에 대한 연구)"의 하나의 세부연구과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저자는 운암의 생애와 사상, 사상의학에 끼친 영향 등을 고찰해 볼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지견을 얻었고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 론

1. 운암의 생애

『동의수세보원』을 발행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한직연(稷淵)·한창연(昌淵)·한병무(秉武, 石下)·한두정(斗正)·한민선(敏善)·한국홍(國弘) 등이 동무 이제마 선생 후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의수세보원』 말미에 "운암연원(芸菴淵源)"이라는 글귀를 넣은 것을 보면 운암이 이들과 같은 본관이리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운암(芸菴)은 이름은 석지(錫地)이고, 호(號)가 운암, 평중(平中) 또는 삭산자(湖山子)이다.

운암은 청주한씨(淸州韓氏) 시조(始祖)인 란(蘭)의 22세손(世孫)이다. 운암의 선조들은 시조 란(蘭)으로부터 7세에 이르러 관북(關北) 청주한씨 시조 예빈윤공(禮賓尹公) 연(連)을 중심으로 이북지방에 거주하게 된다. 그래서 운암은 관북 청주한씨 시조 연으로부터 16세손이 된다. 운암의 세보를 더 자세하게 말하면 호정공 제1자 4세손 세우 제2자 언효파이다. 그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운암은 재희(在誨)의 둘째 아들이다. 청주한씨 예빈윤공파의 족보³⁾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字平中 號芸庵 肅宗己丑生 中司馬 參奉 癸亥卒 著明善錄 享于海月軒社祠 墓宣德面西湖里道藏洞子坐 配全州李氏父成林乙酉生 墓祔有床石

운암의 자(字)는 평중이고 호(號)는 운암(芸菴)이며, 숙종(肅宗) 기축년(己丑年 A.D.1709년) 11월(丙子月) 20일(丙戌日)에 태어났다.⁴⁾ 운암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참봉벼슬을 하였고, 79살에 『명선록』을 저술하였으며, 95살이던 정조 26년 계해년(A.D.1803년)에 죽었다. 해월현에 배향되어 제사를 흠양받고 있으며, 묘는 선덕면 서호리 도장동에 있다.

부인은 전주 이씨 성림(成林)의 딸로 을유생(乙酉生)이다. 『명선록』에는 아들 두명을 두었으나 요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상에는 1남 2녀를 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둘째는 너무 일찍 죽어서 족보에 오르지도 못한 것 같다. 족보에는 아들의 이름이 호일(浩一)이고, 두 딸은 조동제(趙東濟)와 박동석(朴東錫)에게 시집간 것으로 되어 있다.⁵⁾

아버지는 재희(在誨), 어머니는 주씨(朱氏)로 여정(汝井)의 딸이다. 아버지 재희는 자(字)가 헌가(獻可)이며, 신유(辛酉)년에 태어나 文科에 장원급제 하였고, 함경도도(咸鏡道都)의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지냈으며, 정묘년(丁卯年)에 죽었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추서받았다.⁶⁾

운암의 할아버지는 기만(紀萬), 할머니는 용인 이씨(龍仁李氏)로 준달(俊達)의 딸이다. 할아버지 기만은 자(字)는 영두(永斗), 인조(仁祖) 정해(丁亥)생이며 관직은 화릉참봉(和陵參奉)을 지냈고, 갑오(甲午)년에 죽었으며 호조참의(戶曹參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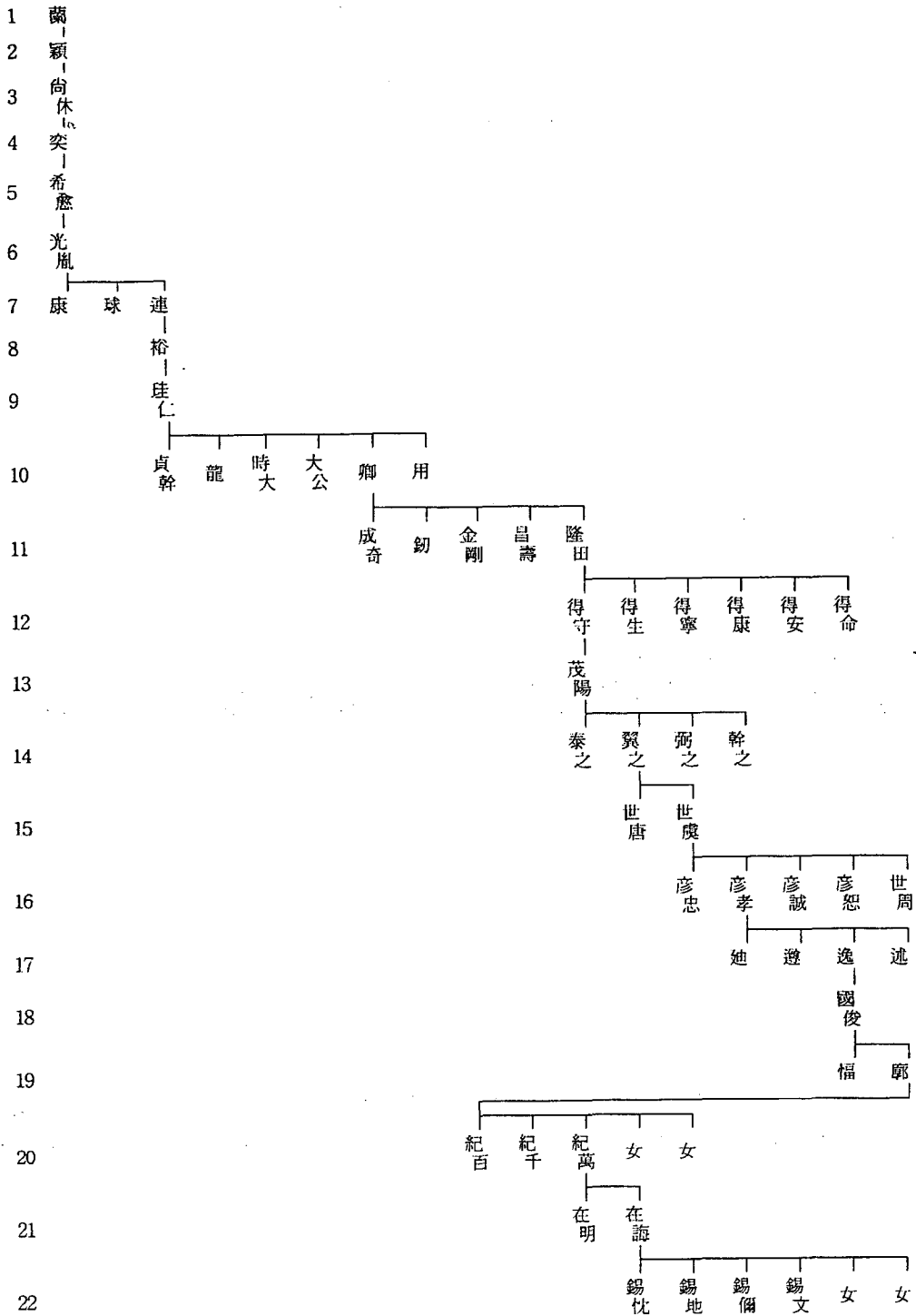
관북청주한씨 오교병자 대동보소, 소화 12(昭和 12 : 1937)년, 제7편 p.133

4) 明善錄 15-107(1), 自敘賦, 崇禎後再己丑 丙子月丙戌日戊子時之初刻 余始生於韓閭. p.572

5) 浩一: 字汝貴 英祖丁卯生丁酉卒 慕宣德面西湖里道藏洞靑龍良坐 配密陽朴氏父大采乙亥生 墓同山來龍卯坐有腐, 淸州韓氏第六校 大同族譜, 禮賓尹公派七篇, p.241

6)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禮賓尹公派七篇, p.241

3)한기방(韓基邦) : 關北淸州韓氏 五校丙子 大同譜, 합흥.



추서받았다.⁷⁾

큰 할아버지 기백(紀百)은 자(字)가 대년(大年)이며 호(號)는 송석(松石)이고, 인조(仁祖) 병자(丙子)생이다. 갑오(甲午)연에 사마(司馬)시에 합격하였고 갑진(甲辰)연에 문과(文科) 장원급제를 하였으며, 문화현감(文化縣監)에 이르렀고, 계유(癸酉)년에 죽었다.⁸⁾ 함산지 《咸山誌》에는 익지(翼之)의 손자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예조좌랑(禮曹佐郎)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다.⁹⁾ 또 다른 부분에는 “문장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커서 세상의 추대를 받았다. 그리고 후학을 가르치는데 힘쓰니 학자들이 경모(景慕)하였다. 아동들에게는 학문을 권장하고 노복(奴僕)들에게는 뽕나무심고 삼심기에 힘쓰도록 하였다. 노후에는 일없이 격양가를 부르면서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 또한 19세에 진사(進士)를 하고 29세에 도과장원(道科壯元)에 뽑혔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둘째 할아버지 기천(紀千)은 자(字)는 연년(延年)이며 인조(仁祖) 을유(乙酉)생으로 계묘(癸卯)년에 사마(司馬)시에 합격했고 을유(乙卯)년에 문과로 관직이 감찰(監察)에 이르렀고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지내다 무오(戊午)년에 죽었다.¹²⁾ 함산지 《咸山誌》에서는 “풍채와 의용(儀容)이 수위(秀偉)하고 재주가 있으며 민첩하였다. 증광급제(增廣及第)에 올랐다.”라고 적고 있다.¹³⁾ 다른 부분에서는 19세에 진사(進士)하고 31세에 증광제(增廣第)에 올랐다고 되어 있다.¹⁴⁾

운암이 태어난 1709(己丑년 숙종 35)년 이후 조선왕조는 대외적으로 평안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영조(英祖 : 1725<乙巳 운암 17세>~1778<戊戌 운암 70세>)와 정조(正祖 : 1778 <戊戌 운암

70세>~1803<癸亥 운암 95세 역책>)시대의 문예 부흥기에 해당했었다. 그러나 이 때는 당쟁과 학문이 얽혀서 피나는 정치적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다. 운암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곡(霞谷) 정재두(鄭齋斗 : 1644-1736)와 다산(茶山) 정약용(鄭若鏞 : 1762-1836)은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쟁과 학문 때문에 평생을 불우하게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운암은 27세였던 1735년(乙卯 영조 11) 사마시험에 합격했고, 참봉(參奉)이라는 종9품 벼슬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평생동안 제대로된 벼슬살이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당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그의 학문사상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송대 주자학은 이원적(二元的) 상응논리(相應論理)를 구사했으며, 이에 일원적(一元的) 상즉논리(相卽論理)로 반기를 들고 일어난 학파가 양명학이다. 양명학의 강령(綱領)은 심즉리설(心卽理說)·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치양지설(致良知說)이 있는데 이것을 양명학의 삼대강령 또는 삼대명제(三大命題)라고 한다.¹⁵⁾

양명학은 일찌기 명종(明宗)조를 전후한 시기에 전래되었으나 최명길(崔明吉), 장유(張維) 등에 의하여 겨우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¹⁶⁾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양명학이 전래되자마자 그 내용을 진지하게 알아본 일도 없이 배척부터 하였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는 “조선에는 양명학파가 없었다. 양명학은 내려 오면서 어떠한 이단, 사설같이 몰아 그 책이 책상 위에 놓인 것만 보아도 벌써 난적(亂賊)의 성토(聲討)를 준비하게 되었다. 한 두 학자가 비록 양명의 학설에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밖으로는 들어내지 못하였다...수 백년 동안 누구를 물을 것 없이 주자학을 받아들여야만 관직에 나아가고 이름을 얻을

7)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禮賓尹公派七篇, p.240
8)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禮賓尹公派七篇, p.231
9) 增補咸山誌, 增補咸山誌編纂委員會, p.271
10) 增補咸山誌, 增補咸山誌編纂委員會, p.436
11) 增補咸山誌, 增補咸山誌編纂委員會, p.269
12)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禮賓尹公派七篇, p.232
13) 增補咸山誌, 增補咸山誌編纂委員會, p.438
14) 增補咸山誌, 增補咸山誌編纂委員會, p.269

15) 김순임 : 양명사상과 원불교, 1996, 원광대학교 출판국, p.17
16) 김순임 : 양명사상과 원불교, 1996, 원광대학교 출판국, p.94

수가 있었다.”17)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황(李滉 1501-1570)이 “전습록변(傳習錄辨)”을 지어 양명학은 공자·맹자의 정통학문이 아니라고 극렬하게 배격하자 사람들은 자연 퇴계의 주장을 따랐고, 이후에는 연구할 수조차 없이 되었다. 더구나 조선초에서는 주자의 성리학이 관학(官學)으로 채택되면서 다른 학설은 거의 용납이 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주자의 학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단시 되었다18).

하곡 정재두가 61살 되던 숙종 35년에 강화도로 이주하여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던 그 해에 운암은 태어났다. 하곡은 만년에 영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죽은지 7년만인 영조 19년에 문장공(文康公)이라는 시호를 받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는 주자학의 관학적 통제로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19).

운암의 경우에서는 내세울 벼슬살이를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명선록』 한권이 있었을 뿐이니, 알아줄 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정인보(鄭寅普)는 한국의 양명학을 대략 세가지로 구분했다20). 첫째 뚜렷한 저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언론간이라도 분명히 증거가 될만한 것이 이들로써 최명길(崔明吉)·장유(張維)·정재두(鄭齋斗)·이광신(李匡臣) 등이고, 둘째 양명학을 비난한 말이 있는데도 앞뒤를 종합해보면 양명학자인 이들로써 이광사(李匡師)·이충익(李忠翊) 등이며, 셋째 양명학을 일언 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으나 그 평생 주장하는 근본정신은 분명히 양명학자였던 이들로써 홍대용(洪大用)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운암은 9세에 맹자를 배웠고, 그 다음에 『대

학』·『중용』·『논어』·『시경』·『서경』·『주역』을 배웠으며, “정자와 주자를 먼저 깨친 사람으로 여겼고, 말을 언급함에는 반드시 공자를 칭하고, 낮과 밤으로 그 주와 풀이를 외우고, 그 말 뜻을 헤아리느라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으며, 마침내는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이루는 것이 거의 이십년 남짓 되도록 보탬이 되는 것이 없었다21)”

그는 “30살 이후에는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송나라 사람들의 책을 궁구히 찾고 지극하게 구했다. 근사록·이정전서·성리대전과 같은 것은 이미 아버지가 배겨주었고, 오자근사록은 스스로 그것을 배기고, 주자대전은 비록 완전히 책을 보지는 못했으나 본 것이 또한 적지 않았다22)”

그러다가 37살의 왕양명이 용장(龍場)에서 어느 봄날 개오(開悟)한 것과 비슷하게 운암은 오득(悟得)했다. “35살이던 계해년(A.D.1743년)의 초겨울(음력10월)에 이르러 우연히 정신이 열려 촉발되고, 생각이 지혜로와지면서 밝은 깨달음이 있었고, 오랜 의심이 깨뜨려지자 모든 것이 밝게 풀어졌다. 이에 두루두루 통하게 되고 널리 꿰뚫게 되어 3년여에 걸쳐서 밝게 통하게 되었고, 이미 근원되는 흐름을 모두 찾아내어 거의 근본과 끝에 미혹됨이 없게 되어, 광대한 것을 노래하고 남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빨리 달려서 일일이 보게 되었다.23)”

“이에 무릇 『중용』과 『대학』은 겉과 속이 되는 것과 『중용』과 『주역』이 하나의 뜻이며, 성인의 책이 하늘의 덕과 하나의 도이고·하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없음을 환하게 본 다음에

17) 정인보 : 양명학연론, 1972, 삼성 문화재단, p.148
18) 김순임 : 양명사상과 원불교, 1996, 원광대학교 출판국, pp.157-158
19) 김순임 : 양명사상과 원불교, 1996, 원광대학교 출판국, p.97
20) 정인보 : 양명학연론, 서울 삼성문화문고, 1975, pp.148-149.

21) 한석지 : 명선록 11-62(1).以程朱로 爲先覺하야 語及에 必稱以夫子하고 日夜에 誦其註解하고 釋其辭意而時乎當食不知味하며 終宵不能寐者 | 幾二十許年에 未有所益이라
22) 한석지 : 명선록 11-62(1).三十以後則捨拋科工하고 窮搜極覓乎宋人之書하니 如近思錄二程全書性理大全則已有先君寫授하고 五子近思錄則自寫之하고 朱子大全則雖未見全本而見者 | 亦不少 | 라
23) 한석지 : 명선록 15-107(3).迨癸亥之孟冬 偶神精之開發 思有寄於理會 破久疑於昭釋 爰旁通而博達 迄三年而融徹 既源流之悉探 庶不迷於本末 耿浩浩而着鞭 驟驟而歷觀

이에 송인의 학설이 땅에 떨어진 꽃과 같고 · 물에 띄어진 나뭇잎과 같으며, 또한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숨 · 흩어지고 걸린 무리와 같아서 찾을만한 맥리 · 버리가 될만큼 빈틈없고 조리가 정연한 것이 없다.

뿔아서 자르고 · 부숴버리고, 얹어지고 넘어지면서 섞이어 어지러워서 스스로 허위에 떨어지게 되니, 송인의 학문은 오로지 불가의 증지일 따름이니, 안으로는 불교이면서 밖으로만 유학이라 말할 수 있다²⁴⁾

이렇게 하루 아침에 개오한 다음의 운암은 철저한 반(反)송학자가 되었고, 그 이후 1787년(丁未년) 79살에 『명선록』을 마칠 때까지 44년간 송학의 사사로운 학설을 물리치고 방자한 말을 몰아내는데 온 생애를 다보냈다. 운암이 평생토록 얻은 것을 때때로 기록해 놓은 것이 『명선록』이고, 이것을 80여년이 지난 다음의 어느날 30대 중반의 이제마가 함흥에서 정평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보고서 배졌다가 문도들이 훗날 간행했다.

이제까지 운암의 학문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지 이을호선생이 1976년도 민족문화사에서 간행한 『명선록』에서 해제로써 밝힌 것²⁵⁾과 1987년 운암 『명선록』 고(考)²⁶⁾에서 밝힌 것이 있을 뿐이고, 몇몇의 논문은 모두 이의 『명선록』 해제를 보고 연구한 것들이다.

2. 운암의 사상에 대하여

운암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명선록』 한권 뿐이다. 이 『명선록』은 운암이 35살이던 계해년(A.D.1743년)의 초겨울(음력10월)에 이르러

밝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수시로 터득한 바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모았다가 따로따로 내놓은 것도 많고, 하나의 뜻을 누누이 풀이한 것도 많다. 상·중·하 세편에 걸쳐 거듭 거듭 잘못된 것을 변별하였으며, 80살이던 무신년(A.D.1788년 정조 11년)에 전부의 책을 가문에 3편으로 전해주었고, 81살이던 기유년(A.D.1789년 정조 12년)에 다시 책을 고쳐서 12월에 합치면서 상편은 치지(致知)·중편은 천오(闡奧)·하편은 변무(辨繆)라고 이름 붙였고, 각 편마다 각각 5절로 나누니 합하면 15절로 말하고 있다²⁷⁾.

운암의 학문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단지 한의학자 가운데 피상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송학에 대한 비판은 너무도 혹심한 것이었기에 몇장만 읽어 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지경이다. 단지 반송학적 내용이라고 일축하기에는 그의 논리가 너무나 치밀하고 반박하는 내용 자체가 송학 전반에 걸친 것이어서 학문원리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송학에 대한 비판

가장 두드러진 운암의 학문적 특성은 송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정신이다.

운암은 “배움이 얕은 것과 깊은 것,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은 상·중·하가 있으므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배움을 그만두지 않으면 중이나 상에 이를 수 있는데, 송인은 이것을 타고난 기운의 맑고 탁함·기질의 고름과 고르지 않음이라고 여겼다.”²⁸⁾라고 말했고, “공자께서 ‘본성은 서로 가깝다.’²⁹⁾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송인이 타고난

24) 한석지 : 명선록 11-62(2). 于以炤見夫庸學之爲表裏와 庸易之爲一義而聖人書 | 莫非一遺一心於天德然後에 乃知宋人之說이如落地之花浮水之葉이며 又似飄泊之絮散搭之類而無有可尋之脈理可紀之綜理라 擲截破碎하고 顛倒錯亂하야 自縻虛爲하니 專是佛宗已라 可謂內佛外儒者也 | 나라

25) 한석지 : 명선록, 민족사, 1976, pp.1-11

26) 이을호 : 운암 명선록 考-그의 유학사적 의의-, 지식산업사, 1987, pp.613-630

27) 한석지 : 명선록 1-1(1). 隨得而隨錄故로 一乘而散出者 | 多矣 一義而屢申者 | 多矣... 至若辨繆之重重復復於三篇... 上篇致知 中篇闡奧 下篇辨繆 而每篇各分五節 合十五節云行, 15-107(4)去年戊申 全書 此家傳三篇矣 今年己酉又改 書學于十二月

28) 한석지 : 명선록 1-14.

學之淺深精粗 有上中下故 下學之不已則可至於中上而宋人則以爲氣稟清濁氣質不齊焉.

29) <論語 陽貨第十七>

기운의 맑고 탁함·타과난 기질의 다름에 건강부회한 까닭으로 주자는 이것을 氣質之性이라 하였다.”³⁰⁾라고 하였다. 여기서 공자가 본성은 서로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성은 누구나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서로 가깝다고 말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는 여기에 주를 달아 설명하기를 “이것은 本然之性이 아니라 기질지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질지성이란 본연지성 즉 하늘의 이치가 사람 개개인에 주어지는 것으로 氣稟과 人慾에 따라 천차만별이 된다. 그러므로 기품에 따라서 평생 고정적으로 누구는 맑고, 누구는 탁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을 제외하고 下愚도 노력하면 上智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주요하게 논하고 있는 것은 본연지성이기 기질지성은 아니며, 기질지성을 말하게 된 의도도 공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갈리거나 염려되어 주자가 어쩔 수 없이 끝에서 설명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무릇 기운이라는 것은 이치와 기운이고, 정이라는 것은 본성과 감정이며, 이치는 천리이고, 본성은 인성이다. 또한 본성이 이치이고 감정은 기운이다. 또 본성과 이치는 본체이고, 감정과 기운은 작용이다... 원래 만가지 잘못이 모두 무극으로써 근본을 삼고 이치와 기운이 둘이라는 것에서 나오니 괴상하고 또한 슬프다³¹⁾”라고 말하여 이기이원(理氣二元)의 상용논리를 비판하고 이기(理氣)·체용(體用)·성정(性情)의 상즉논리인 합일(合一)을 주장하였다.

또한 운암은 “바탕이 아름답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마침내 한쪽으로 치우치는 폐단으로 돌아갈 뿐이고, 진실로 학문을 닦고 덕을 이루면 일찌기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 사람도 마침내 마침내 죽히 참됨을 돕게 되어, 스스로 독실한 공적의 바탕이 되는 것이니, 증자는 우둔했지만 학문을 배워서 성실하고 독실하게 된 것이니, 자고의 어리석음·자장의 편벽됨·자로의 거침이 학문을 배워서 모두 변화하여 아름다워진 것이, 마치 말뚝구리가 매미가 되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사람이 덕을 이루는 것은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학문하는데 있고, 배움의 깨우침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성실함과 성실하지 않음에 있을 따름이다³²⁾”라고 말했다. 이것은 주자가 말한 ‘타고난 기운의 맑고 탁함·기질의 고르고 고르지 못함’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결국 운암이 『명선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氣稟淸濁, 氣質不齊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탓만 하지 말고 학문을 하면 中下의 인간도 상급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氣稟淸濁, 氣質不齊가 생기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氣稟淸濁, 氣質不齊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학문을 좋아하고 好善惡惡, 酒色財權을 경계하는 방법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음을 말하려는 성범일여의 사상이다.

운암은 “맑고 탁함·순수와 뒤섞임·착함과 악함·바름과 그름이 깨우치는 것에 있고 타고난 기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환하게 알 수 있다³³⁾.”라고 말해서 정신적인 단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깨우치기만 하면 성인이나 현인과 마찬가지로 했다. 동무가 “심은 요순과 더불어 증인이 같다”라고 말한 것도 운암의 사상과 똑 같다.

子曰 性相近 習相遠也.

30) 한석지 : 명선록 12-26.

夫子性相近之訓 宋人牽附於淸濁稟殊故 朱子曰 此言氣質之性.

31) 한석지 : 명선록 1-106. 夫氣則理氣也 | 오 情則性情也 | 며 理則天理也 | 오 性則人性也 | 며 又性則理也 | 오 情則氣也 | 며 又性理는 體也 | 오 情氣는 用也...原其高下之繆 | 皆出於以無極爲本理氣爲二也 | 니 可怪而亦可哀也 | 로다

32) 한석지 : 명선록 1-45. 質美而不學則亦終歸於偏蔽而已오 苟學而成德則曾謂之不美者이 適足爲功實而(眞工在於刻苦)自底篤實之功矣니 曾子之魯이 學焉則誠篤이라 是知柴之愚師之辟由之嗚이 學焉則皆能變化而之美者이 如蜚蠊之婢蛻矣라 學焉則愚爲直實이오 辟爲剛果이오 嗚爲詳密이니 婢蛻者이 蜚蠊也이라 ...故로 人之成德이 不在資質이라 只在學問이오 學之明不明은 只在誠不誠已니라.

33) 한석지 : 명선록 5-92. 淸濁粹駁善惡邪正이 在於所喻而不在氣稟을 可以灼知也이니라

그러면서 그 깨침은 점진적인 것을 주장했다. 마치 자신의 경우에서는 30년이 걸렸는데 29년만 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돈오(頓悟)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릇 단박 깨닫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이와같이 우연히 그림자만을 본 것일 뿐이니... 이와같이 단박 깨닫는다고 말하는 무리들은 이미 묻고 배움은 점진적인 노력이 없이... 부지런히 힘써서 나아가지 않는다34). 이것은 양명의 사상과 약간 다른데 운암의 교조적인 면이 부각되는 점이다.

운암은 주정설과 함양설을 비판했다. “무릇 헛되고 없는 것은 참되고 짝 찬 것과 반대되는 것은 마치 죽고 사는 것의 차이와 같고, 무극은 곧 없음의 지극한 것이니, 마치 죽어 썩어져 모두 소멸되어 버린 것과 같다. 묘함의 진실은 어느 곳에 있는가? 진실에서 참됨을 구하지 않고서 진실이 지극해지면 함이 없다고 말하고, 지극히 없고 텅 빈 데서 진실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송인이 노자와 불교의 도를 공구하여 미묘한 법과 극락세계를 얻었다는 것이 ‘없을 무’라는 한글자이다. 한 평생을 숨어서 공부한 것이 실제로는 없음을 숭상하는 것이니, 이른바 고요함을 주로 한다는 것은 무극을 주로 한다는 것이고, 이른바 밖으로 사물을 접촉하여 마음에 유혹됨이 없으면 무극의 참된 본원을 기르는 것이고, 이른바 욕망을 말리고 정을 뽑고 막아버린다는 등의 학설은 모두 없음을 힘쓰는 공부일 뿐이다. 공자께서 “일생동안 착한 일을 행하더라도 한마디 말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 송인을 두고 한 말이다. 송인이 모두 스스로 몸이 다하도록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무극이라는 한마디 말이 도리어 성과 천명을 무너뜨리고 끝없는 굴속으로 떨어뜨린다35). 또한 운암은 “『심

경』·『근사록』은 바로 창녀의 절개·시든 버드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것일 뿐이다. 나는 그러므로 ‘『심경』·『근사록』은 본래 이단서이니, 뒷사람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이학서라고 불렀다’라고 말한다36)”라고 말하면서 주자학에서 중요시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면서 『명선록』 곳곳에 걸쳐 근사록에 등장하는 5사람을 지칭해서 비판했다.

운암은 이기·성정·천인을 분절(分截)하지 않고, 체와 용으로 설명했다. 결국 운암은 타고난 본성은 동일하지만 타고난 천명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여기서 타고난 본성은 맹자의 성선(性善)·도일(道一)의 사상이고 천명이 다르다는 것이다. 운암은 “『시경』에서는 ‘천명은 진실로 다르다’라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임금이 받은 천명은 신하와는 같지 않고, 아버지가 받은 천명은 자식과는 같지 않으며, 무릇 윗사람과 아랫사람·귀하고 천한 사람의 천명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가운데서 받아 선하지 않음이 없어서 한가지인 까닭에 그 본성과 천명이 또한 모두 중용일 뿐이며 선일 뿐이니, 어찌 사람마다 모두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37)”라고 말했다.

(2) 명선(明善)과 치양지(致良知)

운암은 ‘명선(明善)’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본래 착함을 밝히는 것38)이고, 그 본래 착한 성품을 밝히면 마음의 이치는 모두 화합하지 않음이

이러라 一生聽工夫이 其實은 皆尙無也이니 其所謂主靜者는 主無極也이오 其所謂外物不接內欲不萌者는 是涵養無極眞之本源也이오 其所謂遏與拔塞等說이 皆務無之工耳라 夫子이 曰終身行善이라도 一言則敗라하시니 宋人之謂也이라 宋人이 皆自以爲終身行善者而無極一言이 反敗性命而陷無底坑也이니라.

36) 한석지 : 명선록 14-105.曰此이 乃媿妓之節枯楊之華爾라 吾이 故로 曰心經近思錄이 本是異端書이니 後人이 不知然하고 稱曰理學書이니라

37) 한석지 : 명선록 15-104(4).曰詩不云乎아 寔命不同이라하니 故로 君之命이 不與臣同이오 父之命이 不與子同이오 凡貴賤上下之命이 各不同이나 然이나 其受天地之中而無不善則一也 故로 其性命이 亦皆中而已며 善而已니 豈不可曰人人之皆同乎아

38) 한석지 : 명선록 1-1(1).明其性之本善也! 라

34) 한석지 : 명선록 9-15(2).凡頓悟云者이 皆是偶見影子也이니...此輩既無問學漸進之功...更不孜孜用力而進詣하니

35) 한석지 : 명선록 1-100.夫虛無之反於眞實이 如死生之異而無極則無之極이니 如死朽而盡消滅者이라 妙合之眞은 何所住在也오 不求眞於眞實而眞實之誠則無爲라하고 求眞於極虛無이 可乎아 宋人이 攻老佛之道而得微妙之法極樂之界者이 無之一字

없으므로 마음을 다했다고 말한다³⁹⁾”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 타고난 본성은 맹자가 말한 양지양능(良知良能)이며, 지와 행의 통일인 양명의 양지이다⁴⁰⁾.

운암은 양명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는 모양이다. 그의 자서부(自叙賦)와 동인록(動忍錄)을 살펴보다라도 영홍과 천서일대를 떠난 적이 없었고, 중국에 다녀온 사람과 만날 수 있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운암의 주된 사상은 왕양명의 사상과 너무나 똑 같다.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교조적이지 않다. 정인보는 학문은 양명으로 좇아 배웠으면서도 깨치고 터득한 것은 모두 스스로의 마음에서 구하고, 스승과 가르침이라고 해서 구차하게 따르지 않아서 양명 문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사람 쳐놓고 각기 독특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학자의 문하생들처럼 판에 박은 듯한 것이 없었다⁴¹⁾고 말했듯이 양명학자들은 스승과 주장이 같은 사람이 드물다. 단지 전체적인 맥락이 같을 뿐이다. 그래서 운암은 왕양명의 직계 제자와 같은 느낌조차 들 지경이다.

운암은 “성명이 바로고 처음부터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물으면 잘못된 습성이 끊는 물속에서 눈이 녹듯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자질이 비록 우둔하나 배우고 물으면 현명하게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자질은 사람의 차이에 있지 타고날 때 이미 다른 것이 아니다.⁴²⁾”라고하여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운암의 명선은 성인의 경지이다. 따라서 명선만 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야 好善惡惡할 수 있다. 운암은 “사람이 만약 타고난 본성을 밝히지 못하면 성이 비록 발동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중용이 아니고,

정이 비록 이미 발동했으나 이른바 조화로움이 아니니, 반드시 타고난 본성을 밝힌 다음에야 비로소 중용과 조화의 덕을 논할 수가 있다.⁴³⁾”

이 말은 결국 마음이 불빛처럼 밝게 빛나야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동무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동의수세보원·장부론』에서 동무는 “마음은 일신의 주재자가 되어 네 뒤통이와 마음을 등에 지고 앞가슴의 중앙을 올바르게 향하며, 불빛처럼 맑게 빛나고, 이목비구는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폐비간신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함역제복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두견요둔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⁴⁴⁾”라고 말했다.

운암은 “이런 까닭에 성인이 후세에 남기는 가르침은 타고난 본성을 밝히고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넘지 않았으나 중요하고 급하게 여겨야 할 것은 타고난 본성을 밝히는 것이니, 타고난 본성을 밝힘이 이미 지극하면 몸을 정성스럽게 함이 더불어서 지극해진다.⁴⁵⁾”고 했다. 모든 것은 이미 갖추어진 ‘선(善)’에 이르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제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운암은 “성명을 안 다음에 더불어 중용의 도를 논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비록 충심으로 믿고 열심히 배우는 선비라도 그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 진실되고 망령없을 수가 없다.⁴⁶⁾”고 했다.

이런 운암의 사상은 양명의 치양지 사상과 일치한다.

(3) 격물에 대한 해석

- 43) 한석지 : 명선록 3-23.人若善不明則性雖未發이나 非所謂中也 이오 情雖已發이나 非所謂和也이니 必能明善而後에 方可論中和之德也이니라
- 44) 한석지 : 명선록 4-17.心이 爲一身之主宰하여 負隅背心하고 正向臆中하여 光明瑩澈, 耳目口이 無所不察하며 肺脾肝腎이 無所不付하며 領臆臍腹이 無所不誠하며 頭手腰足이 無所不敬하니라
- 45) 한석지 : 명선록 6-60(1).所以聖人之垂訓이 不越乎明善誠身而 所重而急先者이 明善이니 明善之既極則誠身이 兼至矣라
- 46) 한석지 : 명선록 7-76(1).知性命而後에 可與論中庸之道이니 不則雖忠信勤學之士이라도 其知其行이 未能皆眞實而無妄也

39) 한석지 : 명선록 1-1(1).明其本善之性 則心之理無不畢該 故曰盡心

40) 김석근 등 옮김 :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94 p.163

41) 정인보 : 양명학연론, 삼성문화재단 1972 p.115

42) 한석지 : 명선록 10-27.性命之正이 初無不同故로...學問則習性이 如湯之消雪也이라하고 故로 曰資質이 雖愚而學問이 賢則作聖이니라 資者資於人

명나라 학계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었던 문제는 『대학』의 격물론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다. 진목(錢穆)에 의하면 명대에 이르러서 격물론(格物論)에 대한 해석가가 무려 72명이나 될정도였다(47).

주자는 『대학』 경문 1-4에서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였으니, 지식을 지극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이니라)”라는 구절에서 “‘格’은 이름이요, 物은 事와 같으니,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극치가 이르지 않은 것이 없고자하는 것이다(格은 至也요 物은 猶事니 窮至事物之理하여 欲其極處無不到也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암은 “‘格’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 ‘물건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묻고 배워서 물건의 법칙을 바르게 하는(각각 성명의 바름을 바로잡는다는 것의 바로잡음과 같다) 것이다(48)”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왕양명이 “‘格’이라는 것은 마치 맹자께서 ‘훌륭한 사람은 임금의 마음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격과 같으니, 이것은 그 마음의 올바르지 못함을 물리쳐서, 그 본체의 올바름을 온전하게 한다(49)는 것이니, 정인보가 “격은 바르게 한다는 것이고 물은 사물의 물이 아니라 마음 속의 물건 처럼 조금이라도 뜻이 있는 것은 모두 물이다(50)”라는 주장과 똑같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있어서는 인이 바름이 되고, 임금과 신하에 있어서는 정의로움이 바름이 되고, 부부·어른과 아이·친구 및 모든 일들과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각각 본연의 바른 법칙이 아닌 것이 없으니, 진실로 그 본연의 법칙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곧 하늘의 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여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어서 착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모두 나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앎이 지극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홀로 한적하고 외롭고 은미한 가운데와 일에 응하고 물에 접촉하는 때에 하나의 터럭만큼도 스스로 속여서 하늘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만 마음 갖지 않고 근심하지 말며 정신차리고 오로지 하나로 하여, 하느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51)”라고 말했다.

운암은 무릇 천하의 사물이 수 없이 많지만 그 각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만가지 사물에는 만가지 이치가 있다”고 말하고, 또 “사물을 바로한다”고 말하니, ‘격’이라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것이니, 모든 사물의 이치를 밝혀서 그 법칙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52)”라고 말했다. 운암은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양명학의 내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논리로 송학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그런 면에서 운암은 정인보가 말한 조선의 양명학자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무는 홍대용과 같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4) 심즉리

운암은 “마음은 본래 이치서 생기고, 이치와 진실로 간격이 없으니, 이치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리하여 마음은 이치로써 기본을 삼고, 마

47) 김길락 : 상산학과 양명학, 예문서원, p.142
48) 한석지 : 명선록 15-51. 格은 正也이나 格物者는 問學而正<如 各正性命之正>物之則也이라
49) 왕양명전집 권1, 전습록(傳習錄) 상, 徐愛錄, 4쪽, 格物, 如孟子大人格君心之格, 是去其心之不正, 以全其本體之正
50) 정인보 : 양명학연론 삼성문화재단 1972 p.19

51) 한석지 : 명선록 15-51. 在父子則仁爲正이오 在君臣則義爲正이오 在夫婦長幼朋友及以至事事物物에 莫不各有本然之正則하니 苟能正其本然之則則是物格也이오 然後則使能知天道이 變化에 各正性命하야 有物有則而無不善者이 皆備於吾性矣니 是知至也이오 然後則幽獨隱微之中과 應事接物之際여 不可有一毫自欺而違越天則矣니 是意誠也이오 然後則無貳無虞而惟精惟一하야 以順上帝之則矣니 是心正也이니라
52) 한석지 : 명선록 2-107. 凡天下之物이 有萬而各有其則故로 謂之萬物萬理而又謂之格物이니 格은 正也이니 明萬物之理而正其則也이라

음이 이치와 만나면 서로 통하여 문장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문장은 또한 이치이고, 마음은 또한 문장이니, 마음 자체로 마음이 아니고 반드시 이치를 만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이치는 스스로 이치일뿐이고, 마음이 없으면 문장은 스스로 문장일뿐이니, 이치는 마음이 거주하는 곳이고, 문장은 마음이 편안히 있는 곳이니 마음은 이치와 문장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다⁵³⁾”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마음이 곧 이치이고 이치가 곧 태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동무는 장부론 끝에서 마음이 곧 태극이며 몸을 주재한다고 말했는데 운암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더구나 양명이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마음이 텅 비면서도 신령스럽고 밝고 깨달은 것은 본래 그러한 양지라고 말한 것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운암은 또한 “마음과 본성은 하나이니 공부와 공을 들인 보람은 하나일 뿐이다⁵⁴⁾”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본성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5) 지행합일설

왕양명은 격물(格物)을 정물(正物)로 해석하여 마음이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확립이라고 풀이했다. 그의 이런 격물설은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로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사유방법이다⁵⁵⁾.

운암은 “자기가 드러내놓은 마음을 찾고, 덕성을 높이는 공부가 학문이고, 마음과 성을 있게 하고 기르고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이 학문이니, 이 공부와 공을 들이는 것이 하나의 학문인가? 치우친 것을 알고 치우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알고 행하는 공부이고, 어리석은 것을 반드시 밝히고 유약한 것을 반드시 굳세게 하는 것이 알고 행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공부와 공을 들이는 것이 하나의 알음알이와 행동이 아닌가? 또 학문 밖에 달리 알음알이와 행동의 공부가 없고, 알음알이와 행동 밖에는 다른 학문의 공을 들인 것이 없으니, 공부와 공을 들이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무엇인가?⁵⁶⁾”라고 말했다. 이런 사고는 하나이면서 둘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인데 동무가 초본권에서 “하늘이 백성을 내시면서 사물이 있음에 법칙이 있으니 사람의 모양은 물이고 본성은 법칙이다.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을 모양지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 것은 하나이면서 둘이 아니니 태극이라고 말한다⁵⁷⁾.

또한 운암은 “무릇 안은 다만 안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안이고, 밖은 다만 밖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밖이고, 안팎이 두조각이 아니라 한 몸(태극)의 안과 밖이니, 안이 없으면 밖도 없고 밖이 없으면 안도 없고, 한 몸이 없으면 안팎이 없다⁵⁸⁾”라고 말하였고, “처음에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시작이고 진실로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아는 것과 행동함이 서로 일체가 되며 서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⁵⁹⁾”, “아는 것과 행함을 말하자면 아는 것은 본체가 되고 행하는 것이 작용이 된다⁶⁰⁾”라고도 표현했다. 또한 “대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에서 감응하고, 안에서 감응한 것은 말로 표현된다⁶¹⁾”라고 말하였다.

53) 한석지 : 명선록 원본문. 心本生於理, 與理固無間, 無理則無心, 心以理爲本, 心與理遇, 相通成文, 是故文亦理, 是放心亦文, 未有心自心, 必待理而存, 無心理自理, 無心文自文, 理兮心所住, 文兮心所安, 心兮於理文, 不可須臾離.

54) 한석지 : 명선록 1-9. 心性이 一也이라 工夫功效이 一而己矣니라.

55) 김길락 : 상산학과 양명학 예문서원 1995 p.229

56) 한석지 : 명선록 3-89. 曰求放心尊德性之工夫이 學問也이오 存養得心性之功效이 學問也이니 此非工夫功效이 一學問乎아 知備克備은 知行之工夫也이오 必明必強은 知行之功效也이니 此非工夫功效이 一知行乎아 且學問外여 他無知行之工이오 知行外여 他無學問之效이니 工夫功效이 非一而何오

57) 조의학 연변 민족의학연구소 사상의학 초본권 4통 1985 p.4 : 天生萬物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謂之太極.

58) 한석지 : 명선록 1-112. 夫內非徒內라 自外而內오 外非徒外라 自內而外오 內外非二段이라 一體(太極)之內外也 | 一 無內則無外오 無外則無內오 無一體則無內外라

59) 한석지 : 명선록 6-45. 初行은 知之始오 眞知는 行之本이니 所以知行이 相尋於一體而相須也이니라

60) 한석지 : 명선록 6-44. 以知行言則知爲體行爲用也 | 라

이것은 양명이 “앞이 진실되고 절실하고 독실한 곳이 바로 행이며 행이 밝게 깨달아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곳이 바로 앞이다62)”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은 주자와 육상산의 선지후행설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63).

운암은 앞이란 행의 한 과정이고, 행동하는 것은 앞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니, 결국 운암의 지행론은 내외불이(內外不二)와 체용불이(體用不二)를 말하고 있다. 이런 사고는 중국 현대의 양명학자 웅십력(熊十力)에게 까지 전달된다64).

3. 동무 사상과의 상관성

동무의 사상은 『격치고·독행편』에서 가장 꾸밈없이 나타난다. 독행편은 동무가 “한가롭게 거처하고 고요히 생각하면서 터득한 것을 통해 몇가지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은 뒷사람들이 진실로 알아서 함부로 경솔하게 뛰어들거나 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65)”라고 말한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총명하고 깊고 밝으며(聰明深察), 박학하고 분별력 있으면서(博辨闊遠)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당하는 잘못을 보고 양지·양능에 이르는 방법론으로서 이 독행편을 썼으니, 여기서는 치심(治心)·정기(正己)의 수단으로 지인(知人)을 제시했다66). 동무는 “다른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알면 판단에 미혹됨이 없고, 미혹됨이 없으면 마음을 바랄 수가 있다. 마음을 바랄 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知人誠僞則不惑 不惑則正心 正心則不動心)”라고 말했는데 운암은 “부동심의 요체는 이치를 밝혀 의혹됨이

없는데 있으니 의혹됨이 없으면 당연히 감응하여 통하게 되어 中正함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군자의 부동심인 것이다67)”라고 말했다.

또 지인(知人)이나 정기(正己)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바루는 것이며, 자신을 바루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동무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려면 먼저 자기자신부터 성실해야 한다. 낮을 모르면 밤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여름에 대해서 모르면 겨울을 알 수 없다68)”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운암이 제시한 오불조(五不措)69)·명강(明強)70)이 “성(誠)”을 바탕으로 한 것과 같다. 더구나 동무도 “군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움이 마치 미치지 못한 듯이 생각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밝히는데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백번하고, 다른 사람이 열번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천번해야한다71)”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중용』 20-21에서 명강(明強)을 말하는 구절 그대로이다.

61) 한석지 : 명선록 9-70. 夫形於外者 이 感於內하고 感於內者 이 發於言하니
62) 전습록 권중, 答顧東橋書, 知之真切篤實處即是行, 行之明覺精察處即是知
63) 김길락 : 상산학과 양명학 예문서원 1995 p.170
64) 김형찬 등 옮김 : 양명학 예문서원 1995 p.320
65) 격치고 독행편 : 今 此閑居靜思 若干摘發者 眞欲使後人 實知淺深 益究微烈 不敢輕赴輕蹈也
6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사상의학, 1997, p.43

67) 한석지 : 명선록 6-4. 曰不動心之要 이 在於明理而不惑이니 不惑則當感而通하야 止於中正矣니 此 이 君子之不動心也이라
68) 격치고 독행편 : 察人必也立誠 不見其惑則 不知其夜 不見其夏則 不知其冬
69) 중용 20-20 : 有不學이언정 學之면 弗能弗措也니라. 有不問이언정 問之면 弗知弗措也니라. 有不思이언정 思之면 弗得弗措也니라. 有不辨이언정 辨之면 弗明弗措也니라. 有不行이언정 行之면 弗篤弗措也니라.
“①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배우면 능해지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②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물으면 알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③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생각하면 얻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④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분별하면 밝게 되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⑤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행한다면 독실하게 하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70) 중용 20-21 : 人一能之면 己百之하며 人十能之면 己千之니라. 果能此道矣면 雖愚必明하며 雖柔必強이니라. 남이 한 번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백번하고, 남이 열번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천번한다. 과연 이 도에 능하다면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며, 비록 유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71) 격치고 독행편 : 君子 夙夜思 學如不及 明己愚 人一能之 己百人十能之 己千

또한 동무가 “뜻을 정성스럽게하면 중용을 택해서 본성을 다할 수 있다72)”고 말한 것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행위는 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상은 양명의 지행합일과 마찬가지로 사상이다.

동무는 『동의수세보원·장부론』 끝에서 “심이 광명형철하면...無所不忖”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명선록』에서 운암이 “사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더불어 그 얻음과 잃음을 함께 한다. 그것은 이즈러진 버리와 법도를 제정하여, 겉과 속을 통찰하여 모두 고르게 하는 것이다73)”라고 말한 것의 결론 부분처럼 보여진다.

동무는 인품장리 유사부동(人稟臟理 有四不同)이라고 하면서 한 번 정해지면 바뀔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사람의 장리도 또한 有物有則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운암이 “사람이 타고난 천성을 굳게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이른바 하늘이 사람에게 올바른 덕과 마음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항상하는 성품이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이다. 한 번 정해지면 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른바 그 정과 같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을 행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만 “힘이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다. 하지 않은 것이지,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니, 이른바 무릇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재능의 잘못이 아니고, 사물에 법칙이 있게 하신 것은 사물의 이치이다. 한 번 정해지면 움직일 수 없으니, 이른바 각각의 물건들이 모두 그 이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된 욕심에 가려져서 본래 그러한 성과 정, 모든 사물들이 갖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기운

을 주리게하고,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재능을 버려서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74)”라고 말했던 것에서 연원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차등은 후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종자의 차등이 있는 것은 땅의 비옥함과 메마름·비내림과 이슬·사람이 하는 일의 고르지 않음에 연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75)”라고 말한 것도 동무의 사고그대로이다.

또한 “총론적으로 말하면 본성은 모두 같은 것이고, 전적으로 말하면 모양도 진실로 같지 않은 바가 있으며, 색도 진실로 같지 않은 바가 있다76)”라고 말하면서 타고난 본성이 동일함을 주장했다.

또 운암은 “정성은 천명에서 나오니 성이고, 욕망은 성에서 나오니 정성이 발동한 것인데, 발동하면 곧 정이 되니, 하늘의 밝은 명과 사람의 성과 정이 모두 정성일 따름이다. 맑고 탁한 타고난 기운과 선악의 기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성이 머무는 것이 마음이고, 욕망이 발동하는 곳이 마음이니, 마음이 성과 정을 통제한다는 것이 진실로 속이는 것이 아니다.77)”라고 말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차별성은 모두 마음에서 오며, 마음이 성과 정을 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무가 성명론에서 책심책기(責心責氣)의 차이 때문에 심각(心覺)과 기세(氣勢)의 할맹(黠猛)이 결정되며, 사람의 심체청탁(心體淸濁)과 기우강약(氣宇

74) 한석지 : 명선록 2-96.人之秉彝는 人之性也이라 一定而不可易也이니 所謂上帝降衷에 若有恆性者也이오 好是懿德은 人之情也이라 一定而不可奪也이니 所謂乃若其情則可以爲善者也이오 用其力於仁而未見力不足者는 人之才也이라 不爲也이언정 非不能也이니 所謂若夫爲不善은 非才之罪者也이오 有物有則은 物之理也이라 一定而不可移也이니 所謂物物이 各具其理也이라(<上略>言物各有其則也) 人爲私欲所蔽하야 不循本然之性情 與物物之理故로 未得如堯舜者는 餒其天賦之氣하고 拋棄自足之才而不致力故也이니라

75) 한석지 : 명선록 10-18.種差等者 由於地肥磽兩露人事之不齊

76) 한석지 : 명선록 10-17(2).天性也 而統言之則皆同이오 專言之則形固有不一

77) 한석지 : 명선록 4-1(1).誠出於命하니 性也이오 欲出於性하니 誠之發也而發이 卽情也이니 天之明命人之性情이 壹是誠而已라 淸濁之氣善惡之幾는 自何來也오 誠之所住者이 心也이오 欲之所發者이 心也이니 心統性情이 果不誣矣라

72) 격치고 유략 : 誠意則 擇乎中庸而能率性也
73) 한석지 : 명선록 2-107.物之最重이 與心體로 共其得失矣라 吾所謂要提綱而挈維하야 洞表裏而皆準者也이니라

強弱)도 마찬가지로 말한 것은 운암의 이런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⁸⁾.

운암의 사고는 분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하늘과 사람·이와 기·성과 명·성과 정·음과 양·선과 악·지와 행을 체와 용의 이론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하는 것이 어떤 순서가 있기 보다는 타고난 자신의 본성을 밝히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천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명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고는 동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상한론의 시간에 따른 전변(傳變) 개념 대신에 소병(素病)에 따라 병세가 변하는 사고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것은 마음이 통솔하는 성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고도 운암의 체용개념에서 촉발되었다고 생각된다.

(1) 심신사물에 대한 부분

이는 “동무의 사상(四象)을 상기(想起)할 때 『대학』의 팔조목이 사심신물이라는 동무사상의 다른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⁷⁹⁾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무 사상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심신물은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정인보는 “「身」과 「心」과 「意」와 「知」와 「物」은 곧 그 공부에 대한 바(所)의 조리니, 비록 각각 그 바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이고, 「格」과 「致」와 「誠」과 「正」과 「修」는 곧 그 조리에 대한 바의 공부니, 비록 그 이름이 각각 있지만 실제로는 오직 하나의 일이다”⁸⁰⁾라고 말했다.

운암의 사고는 지와 행을 체와 용의 이론으로 설명했으며 “마음과 사물이 모여서 서로 통하는 것이 몸이므로, 『대학』에서 사물은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⁸¹⁾” 따라서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하는 것이 어떤 순서가 있기 보다는 타고난 자신의 본성을 밝히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천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명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운암은 “마음의 본체, 사물의 중요함을 알지 못해서는 안되니, 본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마음 밖은 모두 사물이다. 사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본체와 함께 그 얻음과 잃음을 함께 한다⁸²⁾).

‘물’은 몸밖의 사물이니 집, 나라, 천하를 일컫는 것이고, ‘사’는 자기 자신의 일이니 사물을 궁구하여 지극한 앞에 일르고, 뜻을 정성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사물의 어울림은 모두 자기 한몸에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서는 그 몸을 닦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했다⁸³⁾. 운암은 “부부는 ‘物’이고, 부부사이에 다름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物의(부부의) ‘事’이다⁸⁴⁾”라고 말하여 의식이 개입된 것을 모두 물로 보았다.

동무가 『격치고·유략편』에서 “얼굴에서 풍기는 것·말하는 것·보는 것·듣는 것이 일을 밝히는 4가지 단서가 되고, 분별하고·생각하고·묻고·배우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4가지 단서가 되고, 몸을 굽히고·내치고·거두고·펼치는 것이 몸을 닦는 4가지 단서가 되고, 뜻·담력·생각·의지가 물을 바르게 하는 4가지 단

78)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규장사<奎章社>, 1990, p4. 存其心者는 責其心也라, 心體之明暗이 雖若自然而 責之者는 淸하고 不責者는 濁하니 馬之心覺이 點於牛者는 馬之責心이 點於牛也. 鷹之氣勢가 猛於鷓者는 鷹之責氣이 猛於鷓也니 心體之淸濁과 氣宇之強弱이 在於牛馬鷓鷹者를 以理推之而 猶然커든 況於人乎아 或相倍蓰하며 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하야 茫然不思하며 居然自至而 然哉아

79) 이을호 : 동무사상설의 경학적 기초, 황제의학 Vol.2 No.2 1977 p.312

80) 정인보 : 양명학연론, 1972, 삼성 문화재단, p.76

81) 한석지 : 명선록 2-111.心與物之會通者이 身也故로 大學之事物에 修身이 爲本也이니라

82) 한석지 : 명선록 2-110.心之體物之重을 不可不知니 性爲心之體오 心之外는 皆物也이라 物之最重이 與心體로 共其得失

83) 한석지 : 명선록 5-12.物은 身外之物也이니 家國天下之謂也이오 事는 自己之事也이니 格致誠正之謂也이라 事物之譜이 皆在一身故로 次言修身爲本하니라

84) 한석지 : 명선록 8-26(3).夫婦는 物也이오 別는 這物之事이니

서가 된다⁸⁵⁾”라고 말한 것에서 사·심·신·물은 결국 『대학』의 8조목 가운데 격물(格物)과 치지(致至)를 심(心)에·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심(身)에·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를 사(事)에·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물(物)에 해당시켜 동무 사상론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문제는 비박탐라에 대한 문제이다. 이을호는 “소인지심을 비박탐라의 사상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대학』의 4심을 배분했다⁸⁶⁾”라고 말했으나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하는 편이다. 오히려 비박탐라의 4가지 체질은 동무가 의원론에서 “나는 의약 경험이 있는지 5,000~6,000년 후에 태어나서 옛사람들의 저술을 통하여 우연히 사상인의 장부성리를 깨닫았다⁸⁷⁾”라고 밝힌 것처럼 그 연원은 황제내경 영추의 음양25태인론에서 얻은 것이라고 사려된다.

(2) 지인에 대한 부분

운암은 지인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연유를 살피고·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나 없나를 관찰한다”는 것은 그 행한 것을 공평하게 살피서 사람을 보는 기술이고,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본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이다. 공평하게 살피서 사람을 관찰하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의 착함과 나쁨을 알 수 있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면 공평하게 살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으니, 공자와 맹자의 사람을 관찰하는 가르침이 다른 것 같지만 사람을 아는 실체는 다를게 없다. 여기서 얻으면 또한 저기서 얻을 수 있고, 저기서 잃으면 또한 여기서도 잃는 것이다.⁸⁸⁾”라고 말했으며, 안자가 “순임

금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던 것과 안희가 공자에게 “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커서 천하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록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병통입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음에야 군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쌀레가 비어 자주 굶었으면서도 스스로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던 등의 일을 관찰해보고, 증자가 “선비는 반드시 넓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자하의 세가지 죄를 나무란 것 등의 말과 무성에 도적이 침입했을 때 물러나고 나아감에 자연스러웠던 것 등의 일을 관찰해보고, 자사가 “어찌 벗을 한다고 말하셨습니까?”라고 말한 것과 “임금의 나랏일은 나날이 나빠질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 등의 일과 손을 저어 사자를 대문 밖으로 내보낸 등의 일을 관찰해보고, 맹자께서 “하필 이로움을 말하는가?”라고 말한 것과 “백성이 지금에서야 되갚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질병을 핑계로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등의 일을 관찰해보면 모두 타고난 성정을 바탕으로 강하고 굳세게 우뚝 선 것이다⁸⁹⁾라고 말했다.

또 안자가 하루종일 어리석은 사람처럼 한 것·증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가르침을 청한 것·자사가 도둑이 와도 가지 않았던 것·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때 서두르지 않았던 것 등의 일을 보면 타고난 성정을 바탕으로 고분고분 잘 좇아서 자연스럽고 태연하였으니, 4사람 성인의 타고난 성정은 입장이 바뀌었으면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무릇 기운은 이치를 따라서 나오는 까닭으로 이치가 부드러운 바람과 상서로운 구름같은

之術也이오 聽其言觀其眸는 當面接語而相人之道也이라 夷考而觀人則不待而語而其人之善惡을 可知오 面語而相人則不待夷考而其人之邪正을 可見이니 孔孟觀人之訓이 似異而知人之實이 無不同也이라 得於此則亦得於彼오 失於彼則亦失於此也이니라.

85) 박석언 역 : 격치고 태양사 1985, p.13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慮意 物四端也

86) 이을호 : 동무사상설의 경학적 기초, 황제의학 Vol.2 No.2 1977 p.313

87) 사상의학교실 역음 :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355

88) 한석지 : 명선록 5-85. 視所以觀所由察所安은 夷考其行而觀人

89) 한석지 : 명선록 15-68(1). 觀顏子舜何人及不容何病等語及屢空自樂等事와 觀齊子士不可不弘毅及賈子夏三罪等語及武城有寇去就自如等事와 觀子思豈曰友之云乎及君之國事日非等語及探使者出諸大門等事와 觀孟子何必曰利及民今得反之等語及辭疾不朝等事則俱是剛毅特立底氣象이오

것을 당하면 4사람 성인이 곧 이와 같은 타고난 성정일 것이고, 이치가 태산처럼 돌이 높아서 위험한 것을 당하면 4사람 성인이 또한 이와 같은 타고난 성정이었을 것이니, 이치와 기운이 두조각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⁹⁰⁾라고 말해서 각각 같은 기상을 바탕으로 행동했으며 이치와 기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요도 “아! 사람을 아는데 있으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우임금도 또한 “아! 다 그렇거늘 요임금도 어렵게 여기셨도다. 사람을 알아보면 밝은 것이니 벼슬을 줄 수 있으며, 백성을 편안케 하면 은혜로운 것이니 백성들이 마음에 간질할 것이다. 능히 받고 은혜로우면 어찌 환두를 걱정하며 유묘를 귀양 보내고, 교묘한 말과 아침하는 얼굴 빛을 하는 공임을 두려워할 까닭이 있겠는가?⁹¹⁾”라고 말했다.

동무은 이렇게 말하고도 모자라 “우의 말씀을 세 번 반복하고 우러러보며 말하건대...천하에 희노애락이 몹시 일어나는 것은 모두 행실이 정성되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요임금·우임금도 어려워하고 탄식했던 것이다...⁹²⁾”라고 말했다.

동무는 학문을 단지 도학적·교학적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실천궁행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성명이 비타라 지행야요, 도덕이 비타라 지행야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변을 중시한 도학을 따르기보다, 현실속에서 자신의 도를 이루고 도를 달성하며 뜻을 얻는 것이 학문이라고 주장했던 것

이다.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운암의 『명선록』은 주자학을 비판함은 물론 이거니와 자신의 사상을 거리낌 없이 주장했으며 나중에 동무의 사상학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명선록에 나타난 내용과 사상학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운암은 청주한씨 예빈윤공파(호정공 제1자 4세손 세우 제2자 언효파)로 시조로부터 22세손이며, 1709년(기축년. 숙종 35)에 태어나 1803년(계해년. 정조 6)에 95살에 죽었다.
2. 운암은 주자학과 송인들을 비판했던 양명학자였다.
3. 운암은 “格은 正也”라고 정의했다.
4. 운암은 知行合一說을 주장했다.
5. 운암은 학문을 통해 明善에 도달해야 하며, 이 명선은 致良知와 같다고 주장했다.
6. 운암은 天·人·性·命·理·氣를 나누지 않고 體用으로 설명했다.
7. 운암의 학문 사상은 동무 사상학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8. 운암은 조선의 양명학자 가운데 직접적으로 언론간에 그 내용을 담았던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
9. 동무는 양명학을 일언 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으나 그 평생 주장하는 근본정신은 분명히 양명학자였던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최남선 : 我等의 財産 시문독본(時文讀本) 권

90) 한석지 : 명선록 15-68(2). 觀顏子終日如愚曾子避席請教子思寇至不去孟子去齊不速等事則俱是和順從容底氣象이니 四聖之氣象이 易地則皆然者也이라 夫氣從理出故로 理當和風慶雲然也則四聖이 使同這氣象也이오 理當泰山巖巖如也則四聖이 亦同這氣象也이니 非理氣爲二段者之所可知也이니라.

91) 사상학 집문당 1997 p.344 2-19. 皋陶曰 都라 在知人하며 在安民하나이다. 禹曰 吁라 咸若時暉든 惟帝두 其難之러시니 知人則 哲이라 能官人하며 安民則惠라 黎民이 懷之하리니 能哲而惠년 何憂乎驩兜하며 何遷乎有苗하며 何畏乎巧言令色孔壬이리오.

92) 사상학 집문당 1997 p.345 2-20. 三復大禹之訓而 欽仰之曰...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니, 知人은 帝堯之所難而 大禹之所吁也則...

- 4 제4과 李東武(육당 최남선 전집 제 8권), 현암사, 서울, 1973
2. 이을호 : 동무사상설의 경학적 기초, 황제의학 Vol.2 No.2 1977 p.313, 321
3. 한기방(韓基邦) : 關北淸州韓氏 五校丙子 大同譜, 합흥, 관북청주한씨 오교 병자 대동보소, 소화 12(昭和 12 : 1937)년, 제7편 p.133
4. 청주한씨 대동족보 예빈윤공파 7편, 대전, 회상사, 1993, pp.231-232, 240-241.
5. 김순임 : 양명사상과 원불교,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p.17, 94, 97, pp.157-158,
6. 정인보 : 양명학연론, 삼성 문화재단, 1972, p.19, 115, pp.148-149,
7. 김석근 등 옮김 : 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94, p.163
8. 김길락 : 상산학과 양명학, 예문서원, 1995, p.142, 170, 229
9. 김형찬 등 옮김 : 양명학, 예문서원, 1995, p.320
10. 김형찬 등 옮김 : 조의학 연변 민족의학연구소 사상의학 초본권 4통 1985 p.4
11.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규장사(奎章社) 1990, p4
12. 사상의학교실 엮음 :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344, 355
13. 박석연 역 : 격치고 태양사 1985, p.13, 102, 140, 295, 344,
14. 이을호 : 운암 명선록 考-그의 유학사적 의의 - 지식산업사, 1987, pp.613-630
15. 한석지 : 명선록, 민족사, 1976, pp.1-574
16. 한석지 : 증보합산지, 증보합산지편찬위원회, p. 269, 271, 436, 438
17. 김학주 역: 증용, 명문당, 1993, p.263,
18. 장기근 : 논어, 명문당, 1973, p.429